해외 민주인사 다과회

아직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통의 순간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.

대단히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. 아직 한국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나 20년 30년 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. 그때에 비하면 한국도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.

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고 때로는 숱한 고통과 목숨을 바친 헌신이 있었습니다.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. 한편으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특히 30년 전부터 70년 80년대 중반에 한국사회에 많은 뜻 있는 저항이 있었습니다. 그야말로 캄캄한 밤중에 한줄기 밝은 빛도, 맑은 공기도 아쉽던 어려운 투쟁기였습니다. 그 시기에 국내에서 힘겹게 싸운 분들에게 의지와 용기를 갖게 해 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

국내와 해외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세계여론에 압력을 불러일으켜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일으켰습니다. 저 같은 사람까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큰 첫 걸음이 있었고 대중적인 민주주의시대를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해외서 노력한 여러분들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.

지금 대통령의 권력은 절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. 그렇지만 청와대는 한국 권력의 상징이자 심장입니다. 여러분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을 실감하고 확인하기 위해 권력의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오셔서 권력이 줄어들었지만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. 지난날 수많은 수고와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면 감개무량할 것입니다.

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할 때는 꿈이 있었을 텐데 그 기대와 꿈에 한국 상황이 흡족하게 됐는지 걱정입니다. 어긋나지 않게 잘 이뤄낼지도 걱정입니다.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이 힘든 일 할 때 미처 나는 암흑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80년 초 늦게 미려하나마 참여했습니다. 여러분의 노력에 절반도 안 되나 기대를 갖고 성원해 주십시오. 한국여행이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.